

### 요약

최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개혁 내용을 발표함. 강제보험의 경우 보상 한도액 상향 조정, 지역별 차등 할인 및 할증, 상업보험의 경우 보상 범위 조정, 사업비율 상한 하향 조정, 할인 및 할증 범위 확대 등으로 개혁이 이루어짐.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보험료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나,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한편, 장기적으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산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개혁<sup>1)</sup> 내용을 발표함<sup>2)</sup>
  - 2019년 중국의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은 2억 6,000만 대, 수입보험료는 8,189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손해보험 수입보험료의 63%를 차지하며 중국 자동차보험<sup>3)</sup> 수입보험료가 손해보험산업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sup>4)</sup>
  -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은 높은 영업수수료, 불투명한 사업비 구조, 한정된 보험상품 종류, 융통성 없는 가격 책정 등이 발전 제한요소로 지적됨에 따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소비자보호 강화에 초점을 두고 제도개혁을 추진함
- 자동차 강제보험의 경우, 보상한도액 상향 조정, 지역별 차등 할인 및 할증 등으로 제도가 개선됨
  - 자동차 강제보험 보상 한도액은 기존 12만 2,000위안에서 20만 위안으로 상향됨<sup>5)</sup>
    - 사망 및 후유장애 시 보상 한도액은 11만 위안에서 18만 위안으로, 의료비 보상 한도액은 1만 위안에서 1만 8,000위안으로 확대되는 한편, 재산손해 보상 한도액은 2,000위안으로 유지됨
  - 중국은 지역마다 자동차 사고발생 빈도가 상이함에 따라 동 '지도의견'에서 지역 간 손해를 차이를 고려한 할인 및 할증 요인을 바탕으로 자동차 강제보험 요율을 산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할인율이 늘어남
    - 기존에는 지역별 차등 없이 1년 무사고 10%, 2년 무사고 20%, 3년 무사고 30%의 할인이 적용되었지만, 동 '지도의견'에 따라 3년 무사고는 지역과 연계되어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음<sup>6)</sup>

1) 2020년 9월 3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종합개혁 시행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함

2)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9. 3) "中国银保监会关于印发实施车险综合改革指导意见的通知"

3) 중국의 자동차보험은 크게 자동차 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Compulsory Motor Insurance)과 자동차 상업보험(Voluntary Motor Insurance)으로 분류됨. 우리나라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중국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과 상업보험으로 분류되며, 각각 대인과 대물 보상이 따로 있음

4) 新京报(2020. 9. 3) "车险综合改革正式出炉：交强险限额提至20万 车主福利知多少"

5) 대인 및 대물 보상 합계 한도액임

○ 자동차 상업보험의 경우, 보상 범위 조정, 사업비율 상한 하향 조정, 할인 및 할증 범위 확대 등의 내용으로 개혁이 이루어짐

- 상업보험 보상 한도액은 경제발전과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500만 위안에서 1,000만 위안으로 상향되었으며<sup>7)</sup>, 지진 및 이에 따른 재해, 자연발화, 차량 엔진 침수 및 원인불명으로 인한 차량손실 등이 면책사항에서 삭제됨
- 자동차 상업보험의 기본 보장에 특약항목이었던 차량 도난, 차량 단독 유리 파손, 자연 발화 및 침수 등이 기본보장 항목으로 추가되었고, 자동차 상업보험의 사업비율 상한이 기존의 35%에서 25%로 하향 조정됨
- 자동차 상업보험의 할인 및 할증 범위는 기존 보험료의 0.85~1.15%에서 0.65~1.35%로 조정됨

○ 중국 자동차보험 제도개혁으로 단기적으로는 보험료가 하락하면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은 감소하고 안전운전을 위한 노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중국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sup>8)</sup>

- 자동차 강제보험의 지역별 차등 할인 및 할증제도와 자동차 상업보험의 사업비율 상한 하향 조정, 할인 및 할증 범위 확대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12월 인민넷(人民网)<sup>9)</sup>에 따르면, 약 90% 보험계약자들의 연간보험료가 하락한 가운데, 자동차 평균 보험료는 3,700위안/대에서 2,700위안/대로 하락하였으며, 그 중 보험료 하락폭이 30% 이상에 달하는 보험계약자들이 6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고가 자동차 보험료는 오히려 인상되었고, 최근 3년간 신호등 위반, 과속 등을 포함한 보험 청구기록이 있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는 인상됨
- 2020년 10월 단기적으로 나타난 효과로 벌점브로커들<sup>10)</sup>의 호객행위가 줄어들고 있으며, 개인별로 보험료 할인을 늘리고자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됨<sup>11)</sup>
  - 동 제도개혁으로 벌점과 자동차 보험료가 연동되어 벌점 유무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 또는 할인됨에 따라 벌점 대리 수용이 줄어들고 있음
- Swiss Re에 따르면, 2021년 중국 손해보험 총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5% 줄어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 손해보험회사 중 특히 자동차보험상품을 중점적으로 판매하는 중소형 보험회사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10월 자동차 수입보험료는 618.8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6.4% 하락하였고, 자동차보험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동기 대비 4.0%p 하락한 59.3%를 기록함
  - 2020년 10월 중국인민보험 자동차 수입보험료는 194.2억 위안으로 전월 대비 18.8% 하락하였고, 동기 대비 7.2% 하락하였으며 평안보험 자동차 수입보험료는 151.6억 위안으로 전월 대비 17.63% 하락하였고, 동기 대비 4.

6)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네이멍구, 하이난, 칭하이, 티베트 지역은 50% 할인이 적용되며, 베이징, 톈진 등은 45%, 상하이, 산둥, 광둥 등 지역은 30% 할인을 받을 수 있음

7) 대인 및 대물 보상 합계 한도액임

8) Swiss Re(2020. 10. 15), "Motor insurance reform in China: a win-win for consumers and insurers"

9) 인민넷(2020. 12. 7), "자동차보험개혁, 혜택 배후에 아픔도 동반"

10) 중국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 받은 벌점을 최대 3명의 각기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으로 대신 처리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벌점 1점당 100~110위안에 사서 벌점을 받은 사람에게 150위안에 팔아 40위안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벌점브로커라는 직업이 생김

11) 한국보험신문(2020. 10. 26), "中 車보험 종합개혁방안, 한달만에 효과"

3% 하락함

- 한편, 중국의 자동차보험 개혁은 장기적으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중국의 사업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40%이지만, 동 개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보험계약자는 자동차보험 제도개혁으로 낮은 보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험상품, 소비자보호 강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손해보험회사는 전기자동차보험, 운전행태 기반 자동차보험 및 텔레매틱스(Telematics) 등과 같은 신규 보험상품 및 서비스로 인해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